東洋繪畫·書籍의 保存修理에 관하여

朴 智 善
(京都國寶修理所)

차 례

Ⅰ. 序言
Ⅱ. 동양회화·서적의 구조와 표장 형식
Ⅲ. 修理에 대하여
Ⅳ. 수리의 이념
Ⅴ. 今後의 課題

Ⅰ. 序言

기원전부터 오늘날에 이르기 까지, 인간은 스스로의 감정을 여러 가지 소재를 사용하여 표현해 왔다. 그 소재로서 土·石·木 등의 自然的, 그리고 그 자연물을 가공한 종이 비단 등이 쓰여져 현재 考古遺物·繪畵·書籍 등의 文化財로서 남아 있다. 이들 자연물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문화재는 내부적 혹은 외부적 원인에 의해 세월이 흐름에 따라 손상·약화되어 언제인가는 소멸되어 버린다. 이 손상·약화의 원인을 제거하여 소멸 속도를 늦추고자 하는 직접적 노력으로서 문화재의 수리를 들 수 있으며, 간접적 노력으로서 보존환경개선 등을 들 수 있다.

문화재란 시간적으로 오랜 가치뿐 아니라 각각 역사자료, 미술품, 혹은 신앙의 대상으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다. 문화재 자체의 보존만을 고려한다면, 이상적인 조건을 갖춘 환경에 비장하여 절대로 사람 손에 닿지 않도록 하며 물론 전시도 하지 않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보존방법으로는 그 문화재가 갖고 있는 의미와 존재가치를 발휘시킬 수 없다. 그러므로 문화재는 항시 보존과 활용(전시)을 반복하게 되는데, 이 보존과 활용의 적정선을 찾아내어 결정하는 것은 문화재보존에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의 고민거리이다. 보존과 활용의 반복 속에서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판단에 의해 적절한 수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때 그 문화재의 특질(기법, 재질, 전래 등), 손상(정도, 원인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어떻게 하면 그 손상의 진행 속도를 늦추어 가능한한 오랜 기간 존속시켜 문화재로서의 활용을 가능하게 할 것인가하는 문제는 문화재수리의 전부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문화재의 수리란 의사가 환자를 수술하는 것과 매우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수술을 함으로써 생명을 연장시킬 수는 있으나 그에 따른 위험도 당연히 각오하지 않으면 안된다. 수술할 적당한 시기, 적당한 시술자, 그리고 이상적인 시설들을 필요로 하는데 이러한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오히려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도 생기게 된다. 문화재의 수리도 마찬가지로

수리를 하고자 결심할 때에는 그에 따른 제반 조건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실제로 우리는 과거에는 수리를 함으로서 처음의 의도와는 달리 문화재에 손상을 가져 온 많은 예를 찾아 볼 수 있다. 그 예는 시대, 국가를 막론하고 발견할 수 있는데, 이는 바꾸어 말하면 20세기 중반에 들어와 문화재수리에 관한 개념이 확립되어 가면서 동·서양을 초월한 정보교환이 거듭되어 문화재 보존수리에 관한 의식이 높아진 결과라고도 볼 수 있다. 문화재 보존수리에 관해 관심이 높아진 것은 불과 최근 수십년간의 일이며, 이에는 과학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지구환경의 오염 등을 원인으로 들 수 있다. 동양의 회화·서적은 전통적인 表裝기술(수리도 포함한)에 의해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다. 이 사실은 즉 전통표장기술의 우수성을 증명하는데, 최근에는 서양의 paper conservation 분야에서도 이를 주목하여, 재료 및 기법을 응용하고 있다. 표장기술은 중국, 한국, 일본 3국이 대표되어지는데, 특히 일본의 경우 전통기술을 꾸준히 이어왔을 뿐 아니라 이를 현대과학에 의해 그 우수성을 계속 증명해 감으로써 현재 동양회화 및 서적수리의 선두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일부 전통기법을 지켜오고는 있으나, 이에 대한 과학적 분석 및 문화재수리 방법이 아직 개방적이지 않아 정확한 실상은 알 수 없는데 앞으로의 연구대상으로 충분한 가치가 있으며, 특히 전통표장기술이 제대로 전승되어오지 못한 우리나라의 경우 중국과 일본의 표장기술을 정확히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 글에서는 필자가 중국의 표장기술에 대해서 아직 지식이 부족한 탓으로 중국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로 미루고, 필자가 7년간 접해 온 일본의 문화재수리(전통표장기술도 포함한)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았다. 전통표장기술 및 문화재수리면에서 아직 체계가 잡히지않은 우리 실정에서 이 기술적 내용을 어떻게 우리나라 문화재에 적용해야 하는가 하는 점에서는 앞으로 연구와 시간을 필요로 하나, 수리의 이념면에서는 동·서양을 초월하여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Ⅱ. 동양회화·서적의 구조와 표장 형식

1. 구조

동양회화·서적은 주로 종이, 비단을 支持體로 하여 墨, 물감에 의해 그려지며 접착에는 아교가 쓰인다.

종이는 물속에서 분산시킨 식물성 섬유가 탈수시 수소결합하면서 만들어지는데, 종이를 만드는 섬유로는 마(麻), 닥나무(楮), 대나무(竹), 고정(藁), 삼지닥(三椏), 안피(雁皮), 뽕나무(桑), 청담(青檀) 등을 들 수 있다. 이 중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쓰인 섬유는 닥나무로, 불국사 석가탑 발견의 『無垢浄光大陀羅尼經』이나, 호암미술관소장의 『新羅白紙墨書大方廣佛華嚴經』에서 그리고 고려대장경에서도 예를 찾아 볼 수 있다. 당시의 닥종이 가공술은 뛰어나서, 매우 밀도가 높은 아름다운 종이가 만들어졌음을 문헌과 유물을 통해서 알 수 있으나, 현재 그 가공법의 재현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이다. 특히 호암미술관소장의 『新羅白紙墨書大方廣佛華嚴經』은 『宋史』

등의 문헌에 보이는 白硾紙일 가능성도 있는데, 그 종이의 아름다움이란 이루 말로는 설명할 수 없을 정도이다. 조선시대에 들어 오면 중국 수입의 종이가 눈에 뜨이며, 또한 닥섬유 부족으로 고정 등을 섞은 혼합지(混合紙)도 등장하게 된다. 종이의 섬유 판별은 과거에는 육안에 의한 판단이었으나 최근에는 현미경에 의한 분석(섬유의 종류, 섬유의 길이, 약화 정도 등), 중량조사에 의한 밀도 비교 등이 첨가되어 문화재의 수리에 크게 도움이 되고 있다.

종이이외의 支持體로는 비단, 마, 모시 등이 쓰여지는데, 비단의 경우 시대, 지역에 따라 올의 굵기, 조직의 구조가 다르다. 또한 비단의 폭도 꽤 넓은 예가 있는 것으로 보아 그림용의 비단이 특별히 제작되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 비단, 마, 모시 등은 그대로는 그림 그리기 어려운 재료이므로 두들긴다든지 아교포수를 하는 등 여러 가공을 하게 되는데 그 가공법에 대한 연구는 앞으로의 과제이기도 하다.

물감은 천연의 광물성 안료, 식물성 염료 등이 쓰이는데, 이들은 각각 독특한 가공법에 의해 만들어진다. 예를 들자면 군청(群青)의 경우, 주성분은 鹽基性炭酸銅으로 藍銅鑛(Azurite) 원석을 잘게 부수어 만들어지는데 입자의 크기가 세밀해짐에 따라 백청(白群)에 가까와진다. 군청은 金다음으로 가치가 높다고 말해질 정도로 귀중한 물감으로, 중국으로부터 수입되었으리라고 여겨진다. 이처럼 구하기 어려운 이유로 중요한 부분에 소량 사용하고 나머지는 식물성 염료인 쪽색(藍)으로 대신한 예를 불화에서 흔히 발견 할 수 있다. 또한 백색물감은 鉛白에서 胡粉으로, 황색물감은 雌黃에서 藤黃으로 대치되는 등 시대적 변천도 주목된다. 이외에도 현재의 인공합성물감과는 비교할 수 없는 천연물감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들의 접착에는 牛膠, 鹿膠, 鰾膠 등이 쓰인다.

문화재수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상과 같이 간단히 재료의 몇몇 예를 들었으나, 실제로 재료의 연구는 문헌과 유물, 그리고 기법 재현에 의해 본격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2. 表裝형식

종이, 비단에 그려진 회화·서적은 本紙 한 장만으로는 다루기 어려우므로 옛부터 여러가지 형식으로 표장되어 왔다. 唐의 張彦遠의『歷代名畵記』卷三에는 [論裝背裱軸]이라는 一章이 있어 중국에서는 이미 5세기경에 표장기술이 존재했던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그 표장형식에 관해서는 유품이 없어 상세히 알 수 없으나 추측으로는 종이로 배접하여 주위에 비단을 두른, 현재의 형식과 그다지 다르지 않을 것으로 짐작된다.

표장형식은 크게 軸裝, 幀裝, 冊子裝으로 나눌 수 있다.

軸裝에는 掛軸(족자), 卷物(두루마리)이 있는데 이들은 軸(축)을 사용으로 本紙를 말아 보관이 간편하며, 本紙면이 직접 공기에 접촉하지않아 산화를 어느정도 방지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가는 축에 마는데서 오는 물리적 손상은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幀裝에는 屛風(병풍), 額(액자)이 있다. 이들은 나무틀 위에 몇 겹의 종이를 발라 그위에 本紙를

붙이는 형식으로, 간혹 나무틀대신 나무판을 사용한 경우도 있다. 幀裝의 경우 軸裝과는 정반대로 本紙면이 늘 공기중에 노출되어 있어 산화하기 쉬우며 本紙 둘레가 고정되어 있기때문에 늘 긴장된 상태이며, 따라서 온·습도에 의한 수축·팽창에 순응하기 어려운 단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가 아니라도 다루기 쉬운 장점도 있다.

冊子裝에는 書畵帖, 折本, 綴本 등을 들 수 있다.

이상의 표장형식은 本紙 내용에 따라, 또한 시대•지역에 따라 그 특징이 달라진다. 이는 시대적, 지역적 미의식의 반영으로, 건축양식에 따라 족자의 비례가 달라지는 등 나름대로의 근거를 가지고 있으므로 수리시 표장형식을 변화시킬 때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한다.

Ⅲ. 修理에 관하여

1. 수리방침의 결정

약화한 本紙는 각각 만들어진 환경, 보관된 환경, 再表裝의 유무 등에 따라 여러 양상을 띠고 있다. 따라서 수리를 시작하기 전에 그 本紙의 역사를 파악하지 않으면 안되며, 더우기 그것을 파악함으로서 그 本紙를 어떤 식으로 남겨갈 것인지를 생각할 수 있다. 즉 미술품으로서 감상하기 좋도록 再表裝할 것인지, 역사자료로서 현재 있는 그대로의 형태를 유지시킬 것인지, 신앙의 대상으로서의 역활을 계속 지속시킬 것인지 등의 여러 조건에 따라 수리방침이 크게 달라진다.

예를 들자면 掛軸은 원래 本紙를 壁面에 걸기 위한 것이기는 하지만, 단순히 그 목적 뿐만은 아니다. 종이, 비단은 그 자체로서는 그다지 강도를 가지고 있지 않기때문에, 배접을 하여 表裝함으로서 비로소 다루기 쉽게 된다. 따라서 전시를 자주할 것인가, 秘藏할 것인가 또는 그것을 다루는 사람이 전문가인지 일반인인지 등에 따라, 즉 수리 후에 어떤 식으로 이용할 것인지에 따라 그 수리내용이 결정된다. 바꾸어 말하면 수리 후의 보존환경 및 전시방법도 커다란 요인으로서 반영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 등을 기본으로 수리방침(수리방법도 포함하여)은 결정되며, 동시에 表裝 형식도 정해진다. 表裝은 감상시 本紙의 배경으로서, 시각·감각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위에 둘려진 비단이 달라지면, 그 本紙자체의 느낌도 크게 달라진다. 그러므로 비단의 선택, 치수의 비율은 本紙의 내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당연한데, 전체의 미의식이라는 문제에서도 중국·한국·일본의 表裝은 걸리는 장소 및 시대적 취향에 따라 차이를 나타낸다. 이 점에 관해서는 卷物, 畵岾, 屛風 등도 마찬가지이다.

2. 실제의 수리

기본적으로 絹本, 紙本인 동양회화 · 서적의 전통적인 수리는 紙 · 糊(풀) · 水라는 3요소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은 일견 단순한 재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것들을 제대로 사용하기까지에는 장기간에 걸친 연구를 필요로 하였다. 오늘날 이들 전통적 재료와 기법은 자연과학과의 접근에 의해 많은 부분이 증명되어, 이를 서양의 paper conservation 분야에서도 주목하게 되었다. 또한 최근에는 동양의 전통기법도 동·서양의 정보교환 및 과학적 정보를 받아들여, 여러 새로운 재료 및 工法이 점차 이용되고 있어, 수리분야의 새로운 전개가 기대된다.

A. 조사

실제로 수리를 시작하기 전에, 수리방침을 세우기 위해서는 수리대상 작품에 관한 충분한 자료가 필요하다. 재질 · 상태 · 손상 등의 조사, 구체적으로는 육안에 의한 관찰, 사진과 현미경에 의한 조사 등을 실시한다.

육안에 의한 조사란 本紙결실부분, 꺾임부분, 물감의 박락부분, 덧칠부분, 약화가 심한 부분 등 사진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을 손상지도를 그려 표시한다. 손상지도는 수리 전의 자료로서의 의미 이외에 수리담당자가 손상지도를 작성하면서 본지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사진조사는 전체의 흑백, 칼라사진은 물론,각 부분의 세부사진, 경우에 따라 墨線을 확인하기 위한 적외선사진 및 적외선 TV카메라에 의한 조사 그리고 물감 및 支持體의 조사를 위해 X선투과사진 · 자외선반사사진 · 현미경사진도 사용된다. 조사는 수리전 뿐아니라 수리중에도 실시되는데 특히 수리과정중에만 가능한 조사도 있다. 本紙의 뒷면은 구배접지를 제거한 상태에서만 볼 수 있는데 伏彩가 있는 絹本회화의 경우, 伏彩는 이 상태만이 유일한 조사기회이다. 따라서 이때의 조사, 기록, 사진촬영은 필요불가결하다. (사진 2 참조)

이러한 조사결과는 수리시 활용되는 것은 물론, 연구자들에게도 활용되어야하며 이들 조사결과와 수리기록은 그 해당문화재와 함께 전해져야 하는데, 이것이 연구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다음 수리시에 귀중한 자료가 됨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러한 기록을 남겨 후세에 전하는 일은 수리에 관여하고 있는 사람들의 의무이기도하다.

B. 本紙수리, 표창

수리전 조사, 기록이 끝나면 실제로 本紙의 수리에 들어가게 된다.

서양에서 회화수리는 本紙수리와 表裝(mount)이 따로 분리되어 시행되나 동양의 경우는 이와는 달리, 本紙의 再表裝(remount) 중의 한 工程으로서 수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表裝과 修理를 나누어 생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本紙의 수리는 대상작품의 손상정도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지

므로 수리과정을 한마디로 설명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나 여기에서는 掛軸(족자)를 예로 들어 간단히 정리해보도록 한다.

a. 해체

우선 本紙를 주위의 표장비단(종이) 으로부터 분리한 다음, 本紙에 구배접지를 제거한다. 이때 本紙에 가장 가까운 1차배접지만을 남기고 제거하는데 단, 本紙의 손상이 심할 경우에는 本紙가 안전한 상태로 처치 될때까지 배접지를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남겨두는 경우도 있다.

b. cleaning

cleaning의 대상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 작품 표면을 더럽히는 요인은 먼지 · 그을음 · 빗물 등에 의한 얼룩, 곰팡이에 의한 얼룩 등 그 원인은 매우 다양한데, 이들을 제거하는데는 최대한의 주의와 최소한의 처리가 필요하다. cleaning은 本紙의 안전(물감의 접착상태, 支持體의 약화상태 등)을 확인한 후에 실시해야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물(염분, 철분 등을 제거한 정화수)에 의한 최소한의 처리를 실시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안전성에 있어 확실한 data를 갖고 있는 약품을 소량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처리후 약품이 잔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최근에는 vacuum suction(진공 吸引台)이 사용되어 부분 cleaning에 크게 도움이 되기는하나, 물감의 종류와 상태, 支持體의 약화상태에 따라 사용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또한 물에 의한 cleaning일 경우 물의 온도를 높임에 따라 작업이 원활해지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나 동양회화란 아교에 의해 접착된 것으로 물의 온도가 높아지면 매우 불안정해지므로 물의 온도는 올리지 않도록 한다.

cleaning을 함으로서 本紙의 古色을 제거하여 本紙의 인상이 변하는 수도 있으며, 또는 cleaning을 함으로서 보이지 않던 부분이 드러나는 경우도 있다. cleaning이 그 本紙에 어느 정도 필요한지, 부분얼룩인 경우 어느 정도 本紙 감상에 방해원인이 되는지에 따라 cleaning의 방침이 결정되는데, cleaning이 本紙 수리과정 중 매우 위험한 작업이라는 사실은 거듭 주의해야 한다.

c. 물감의 박락(剝落) 방지

물감을 접착시키고 있는 아교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 접착성이 떨어진다. 물감의 약화는 물감입자 간의 접착이 약해져 물감이 분말화되는 경우와, 물감층과 支持體의 접착이 약해져서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 이 두 경우의 박락방지처리는 그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우선 약화원인을 파악한 후 아교처리를 한다. 이때 접착제는 상태에 따라 牛繆, 兎繆 등이 사용된다.

d. 舊배접지, 부적절한 舊수리부분제거 (사진 6, 7참조)

물감의 안정을 확인한 후 배접지를 제거한다. 배접지제거 방법은 과거에는 水로 本紙 전체를 적셔 일시에 배접지를 제거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물에 의해 물감의 접착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짧은 시간에 제거작업을 실시해야 했으므로 本紙의 상태에 따라서는 극세부까지 신경을 쓸 수 없어 어느 정도의 本紙의 손상(伏彩되어진 물감, 혹은 분말화되어진 本紙파편)을 감수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乾式배접지제거법이 연구, 활용되어 최소한의 습기로 충분한 시간 여유를 갖고 배접지를 제거할 수 있게 되었다. 건식배접지제거법이란 本紙를 임시 표면배접

(facing) 하여 고정시킨 후 실시되므로 본지의 극세부까지 신경을 쓸 수 있으며, 배접지제거 후 건조한 상태에서 본지의 뒷면을 볼 수 있으므로 伏彩의 조사, 연구도 가능하게 되었다. 本紙의 facing은 작업상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처치후 쉽게 제거할 수 있는 布海苔를 사용한다.

배접지제거 후 舊수리시 더하여진 불필요한 부분, 즉 本紙와 이질적인 舊補塡부분을 제거하여 original의 本紙부분만을 남기는데, 간혹 舊補塡부분에 畵像이 그려진 경우도 있어 제거여부에 대한 논의가 생기는데 이는 이미 수리전 조사시에 결정되어져야 한다.

e. 本紙결실부의 補塡 (사진 8 참조)

本紙의 결실은 꺾임부분의 마찰, 虫損, 혹은 舊수리시 결실부보다 넓은 때움질에 의한 것 등 여러 원인에서부터 초래된다. 현재, 絹本의 결실부분의 補塡에는 original絹에 맞추어 만든 畵絹을 전자선에 의해 강제약화시킨 것이 사용되고 있다. 이것은 약화한 本紙의 絹과 強度이 균형을 맞추기위해서인데, 만약 補塡絹이 強하면 本紙의 絹보다 수축이 심하므로 결실부분 주위에서부터 손상이 오기시작하기 때문이다. 또한 補塡絹이 결실부분보다 커지면 결실부 주위가 이중으로 겹쳐지게 되어 결국 本紙부분이 떨어져나가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러므로 결실부분의 補塡은 本紙와 똑같은 조직, 똑같은 강도의 絹을 결실 부분의 크기에 맞추어 때워 주어 本紙를 한장 두께의 絹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紙本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本紙의 섬유의 종류, 길이, 강도 등을 맞추어 補塡紙를 만들어 결실부를 때워준다. 이러한 재질의 문제는 과학적 분석에 의존하고 있으며, 동시에 육안에 의한 감각적 판단도 중요시 된다.

f. 本紙의 배접 (사진 9 참조)

결실부분의 補塡이 끝나면 facing을 제거하여 새로이 배접을 한다. 本紙에 따라서는 약화가 심해서 本紙가 그 자체만으로는 형태를 유지하지 못하여 배접지와의 접착에 의해 겨우 그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도 흔히 있다. 本紙를 지탱시키고 있는 배접지와 그 배접지를 접착시키고 있는 풀은 本紙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므로 선택에 신중해야 하는데, 이때 쓰여지는 배접지는 대개 닥지로 일정의Test(PH 측정, 철분의 유무 등의 성분검사, 강도, 유연도 등의 측정 · · ·) 에 의해 선별된 것이며, 풀은 小麥澱粉糊라 하는 밀가루전분풀로 밀가루에서 단백질을 충분히 제거시켜 가열시킨 것이 쓰인다. 밀가루전분풀로 접착시킨 배접지는 물에 의해 분리되어 재수리를 용이하게 한다.

g. 表裝비단(종이)의 준비

本紙의 주위에 둘러지는 비단, 혹은 종이는 本紙의 내용에 따라 결정되는데 本紙와의 시대성을 맞추어 주기 위해 식물염료로 물들인 후 古色을 띄워 주기도 한다. 비단(혹은 종이)의 분위기가 맞추어지면 本紙의 1차배접과 마찬가지로 小麥澱粉糊로 닥지에 의해 배접된다.

h. 2차배접

1차배접이 끝난 本紙와 표장비단은 각각 두께와 탄력성이 틀리므로 두종류를 한장의 족자로 연결시켰을 때 balance에 불균형이 오게 된다. 그러므로 2차배접에서 배접지의 두께 등을 조절하

여 2차배접 후 같은 탄력을 갖도록 한다. 이때 쓰여지는 풀은 古糊라하여 小麥澱粉糊를 10년 정도 보존시킨 것으로 이 풀을 수용액으로 만들어 사용하면 건조후에도 유연하여 꺾이기 힘들어 말고 펴기에 용이하기 때문에 족자의 배접에 적합하다. 다만 이 풀의 수용액은 약산성이므로 배접지는 탄산칼륨계통(白土)을 넣은 약알칼리성의 닥지가 사용되는데 이 닥지 역시 유연하여 족자의 배접지로 적당하다.

i. 건조

2차배접된 本紙는 이미 꺾인 부분, 앞으로 꺾이기 쉬운 부분에 꺾임방지띠(닥지를 가늘게 자른 것)을 붙인 후 건조판에서 건조시킨다. 표장비단도 마찬가지로 건조시킨다.

j. 3차배접 (사진 10 참조)

本紙와 표장비단을 재단하여 족자의 형태로 만들어 2차배접과 같이 배접한 후 충분히 건조시켜 끝마무리한다.

C. 보존

수리후 족자는 가능한한 굵게 마는 것이 좋은데, 최근에는 보관용 굵은 축이 개발되어 있으며 이 굵은 축에 말은 족자는 오동나무상자에 보관한다. 보관할 때는, 온도는 20℃내외, 습도는 50% 내외가 적합한데 특히 주의할 점은 온·습도의 급격한 변화를 피해야 한다. 또한 장기간의 전시는 이상적이지 못하며 부득이 장기간 전시해야 할 경우에는 모사품으로 대신하는 것도 문화재보존의 한 방법이기도 하다.

Ⅳ. 수리의 이념

문화재의 수리에 있어서 중요한 두 원칙이 있는데, 그 첫째는 반드시 후세에 재수리가 가능하도록 재료, 工法을 선택하는 일이다. 동양회화 서적이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는 이유는 紙, 水, 糊에 의한 재수리가 몇 차례라도 가능했기 때문이다. 최근 과학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수많은 화학제품이 생산되고 있다. 이러한 제품들은 전통재료에 비해 사용하기에 간편한 것이 대부분이지만 후일 제거하는 것이 곤란하여 재수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도 있다. 이외에도 산화하기 쉬운 값싼 재료의 사용으로 문화재의 약화를 조장시키는 예도 손꼽을 수 없을 정도로 흔히 있다. 수리를 함으로써 本紙는 수명을 연장시키는 것이 가능하나, 그것에도 한계가 있어, 다만 약화의 속도를 지연시키는 것일 뿐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하며, 또한 현재의 기술로서 불가능한 처치도 언제인가는 가능할지도 모르므로, 후세의 사람들에게 그 해결을 맡기는 것도 수리하는 사람의 양심 문제인 동시에 필요한 자세이다.

두번째로는 本紙의 현상 유지를 우선원칙으로 해야 한다. 과거의 수리에 의해 本紙의 가장자리가 잘려진 예를 볼 수 있다. 아마도 당시 가장자리가 많이 손상되어 있었으므로 깨끗이 수리하기

위해 잘라버렸으리라고 추측된다. 그러나 손상되어 형태가 이지러져 감상에 지장이 된다하여 本紙를 잘라버린다든지 결실부분의 畵像이 연결되지 않는다 하여 畵像을 그려넣는 등, original의 本紙에 영향을 주는 것은 수리의 목적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문화재의 수리는 그 문화재를 말끔하게 치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안전히 보존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현재 문화재로서 전해지고 있는 대부분은 再表裝·修理된 것으로, 제작 당시 그대로의 것은 거의 찾기 힘들다. 그 이유는 감상 의 필요성에서 바뀌어진 것도 있으며, 혹은 original表裝形式의 보존에 대한 의식이 없음에서 비롯된 것도 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각 시대의 表裝에는 그 時代의 미의식이 반영되어있어, original의 표장形式에서도 자료로서의 의미를 충분히 찾을 수 있으므로, 앞으로의 수리는 이러한 표장형식의 문제도 충분히 고려하여 수리방침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 문제에 관하여 두 개의 예를 들고자 한다. 文書 및 地圖 등은 비교적 원상태를 지키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는 表裝할 정도의 내용이 아니었기 때문에 접거나 말은 상태 그대로의 형태를 유지해 왔다. 이러하듯이 배접함으로서 취급하기 쉽고 안심할 수 있을 정도의 강도를 부여할 수는 있으나, 취급횟수가 빈번하지않고 조심스레 다룬다면, 특별히 배접하지 않고도 보존이 가능할 경우도 많이 있다. 오히려 배접을 함으로서 그 접혀진 형태로서의 이용방법과 original本紙만이 갖고있는 감촉, 느낌을 잃어버릴 수도 있기때문이다. 이 경우에는 적절한 보관환경(보관상자 및 취급방법의 指導)을 만들어주는 것이 수리라고 할 수 있다.

다른 한 예를 들자면, 서양과 동양이 미술관 어디에서나 족자가 액자형식으로 바뀐 것을 자주 볼 수 있다. 물감, 支持體가 축에 말린다는 물리적 작용에 견딜 수 없는 경우 등은 부득이하지만, 이렇듯 표장형식을 바꾸는 것은 그 本紙의 역사의 대부분을 변화시키는 일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족자의 경우 오동나무상자에 보관함으로써 공기 중의 습도 및 산화로부터 지켜지며, 말음으로서 本紙면이 직접 공기에 닿지 않아 산화를 방지하고 운반·수납에 편리하다. 또한 本紙의 伸縮이 비교적 자유스러운 점도 장점의 하나이다. 그러나 말음으로서 발생되는 물리적 약화 및 취급시의 위험성 등은 결점으로 지적된다. 액자의 경우는 그 장점과 결점이 바뀐다. 이렇듯 양쪽 중 어떤 쪽인가를 선택할 경우에는 반드시 충분한 근거가 있어야한다.

문화재를 수리할 때는 다방면에서의 판단이 필요하다. 장점을 선택하면 반드시 그에 대한 결점이 따르게 되는데, 그 결점을 어떻게 보충해갈 것 인가 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실제로 문화재를 수리할 때 수리에 걸리는 시간보다 조사하고 생각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많은 경우가 있다. 수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시간이 길지도 모르나, 긴 세월을 지내 온 문화재의 입장에서는 짧은 순간에 불과할 것이다. 결국 문화재는 우리 세대만의 것이 아니라 긴 세월 중 우리 세대를 잠깐 거쳐가는, 즉 우리들은 그 문화재를 잠시 지키고있을 뿐이므로 그 문화재를 안전히 다음 세대에 전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인 것이다. 과거 몇 백년간을 전해 와, 앞으로 몇 백년이상 후세에 전해질 문화재를 위해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확실한 수리이념을 세워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함은 당연한 일이 아닐까 생각된다.

V. 今後의 課題

우리나라의 전통표장기술이 제대로 전승되어 오지 못하고, 더우기 좀처럼 체계가 잡히지 않는 데는 여러 원인을 들 수 있다. 전승되어 오지 못한 가장 큰 이유로는 한국과 일본의 역사적 관계, 즉 20세기 초반에 유입된 일본의 표장기술을 들 수 있는데 이 때에 한국의 전통표장양식은 거의 파괴되었다고 하여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중요한 문화재일 수록 먼저 손대어져, 현재 한국의 전통표장을 알 수 있는 유물은 매우 드물고 기록 또한 찾아보기 힘들다. 그러한 탓으로 한국에는 전통표장양식이 없었다고 이야기되기도 한다. 과거 미국, 유럽 미술관의 동양회화는 일본의 표구사들에 의해 일본식으로 표장되어왔는데 최근 중국회화에 일본표장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반성이 일어나기 시작하여, 중국회화수리를 위해 중국표구사들의 진출도 눈에 띠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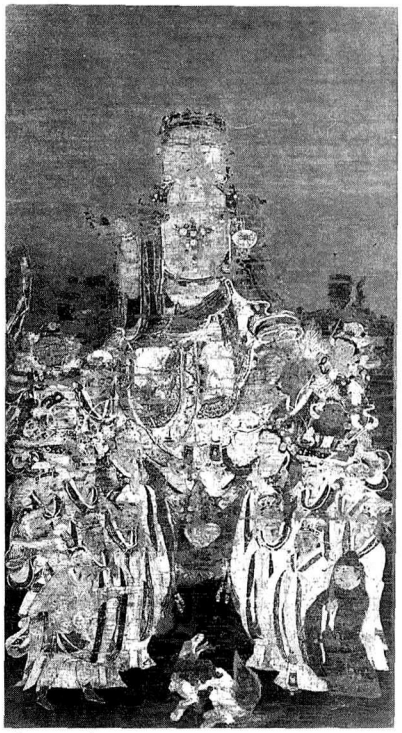
이처럼 세계적으로 문화재수리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는 가운데 한국의 문화재수리분야에서는 좀처럼 움직임이 보이지않는 커다란 원인으로 문화재수리에 대한 학문적 접근이 없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회화사에 있어서 재료에 대한 연구, 기법에 대한 연구는 문화재수리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데 지금까지 행하여진 문화재수리 중에서 얻을 수 있었던 많은 연구자료들이 활용되지 못한 채 버려져 왔고, 그에 대한 중요성도 아직 인식되지 않고 있다고 여겨진다. 문화재를 수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지금까지는 수리시 학문적 충고를 얻기는 힘들었고, 아마도 함께 토론했던 기회도 거의 없었다고 생각된다. 그 이유로 양자의 문화재수리에 대한 인식 수준은 전혀 진전없이 지금까지 지내왔던 것이다.

오늘날 세계적으로 많은 정보가 교환되고, 한국의 문화재수리도 어느 정도의 수준을 필요로 하게되었다.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문화재수리란 다방면에서의 의견과 판단이 필요한데 이는 수리기술자의 수준양성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며 수리를 하는 입장, 학문을 하는 입장, 문화재를 소유하고 있는 입장의 사람들이 모여 그 문화재에 대한 종합적인 토론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한국의 문화재수리도 시작된다고 생각된다. 또한 그에 따른 충분한 예산(충분한 시간을 포함한)도 앞으로는 반영되어야 하며, 수리기술자, 연구자, 그리고 소유자에게도 문화재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주) 本紙 : 畵·書가 그려져있는 絹本, 紙本 그 自體를 일컬음
布海苔 : 海藻에서 얻어지는 매우 약한 접착제

참 고 문 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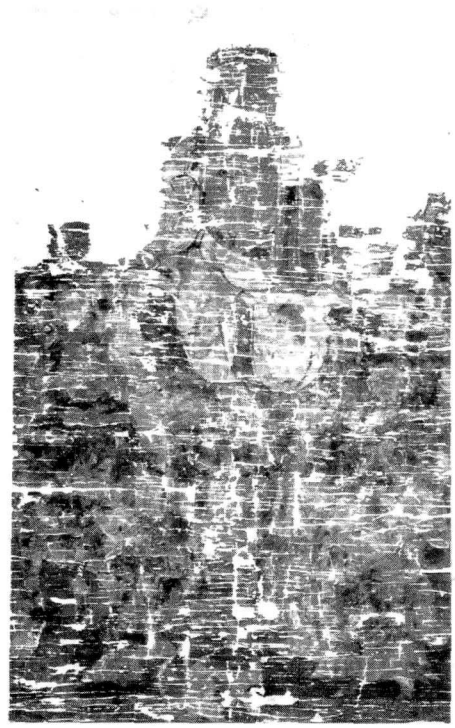
- 和紙文化誌 1990年 久米康生著 每日comunication 發行
- 繪畵材料事典 1973年 R. J. Gettens & G. L. Stout 著
  森田恒之譯 美術出版社
- 畵論 1973년 古原宏伸著 明德出版社
- 佛教藝術 139號 1981年 '文化財の保存と修理' 每日新聞社
- 佛教藝術 195號 1991年 '最近の文化財修理' 每日新聞社
- 歷代名畵記 1977年 張彦遠著
  長廣敏雄譯 東洋文庫
- 古美術品材料の科學 1979年 登右健三著 第一法規出版
- 古美術品保存の知識 1970年 登右健三著 第一法規出版
- 湖林美術所藏 絹本著色 '地藏十王圖' 修理報告書 1990年 岡墨光堂



〈사진 1〉 수리전 本紙全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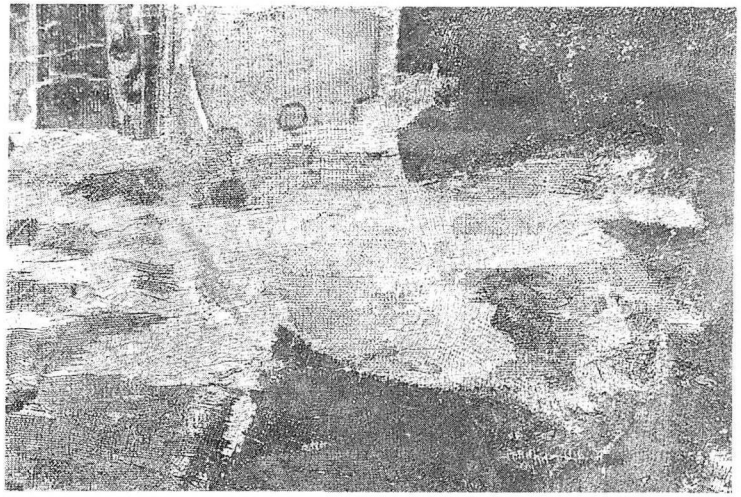
수리후 本紙全圖

〈사진 2〉 舊배접지 제거 후의 本紙뒷면



부적절한 舊수리부분(이질의 補塡絹 등) 제거 후의 本紙뒷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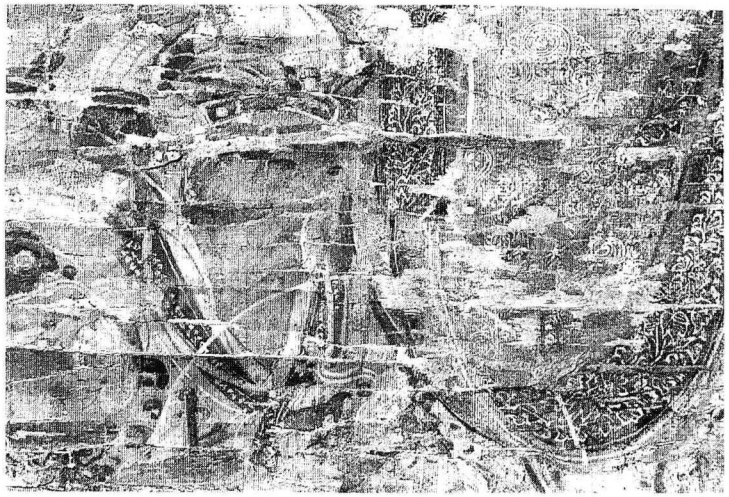
〈사진 3〉 수리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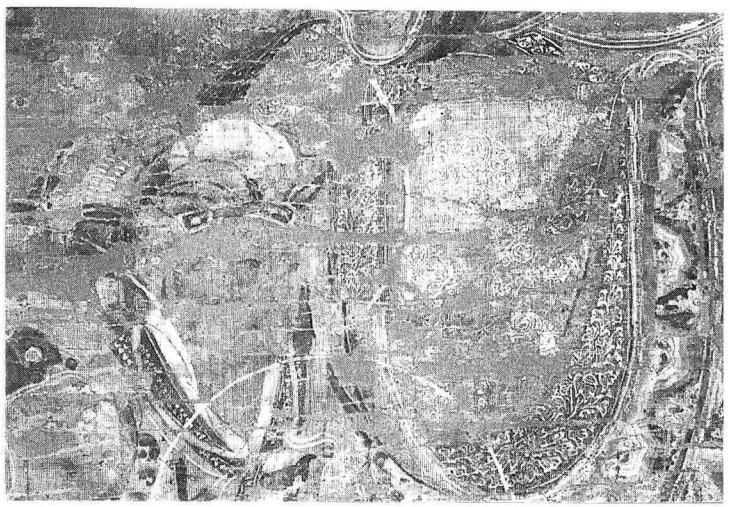
〈사진 4〉 수리전

수리후　補筆이 되어져있는 舊補塡絹을 제거하여 전자선에 의해 강제 약화시킨 絹으로 새로이 補塡 하였다.

수리후　사진 3과 동일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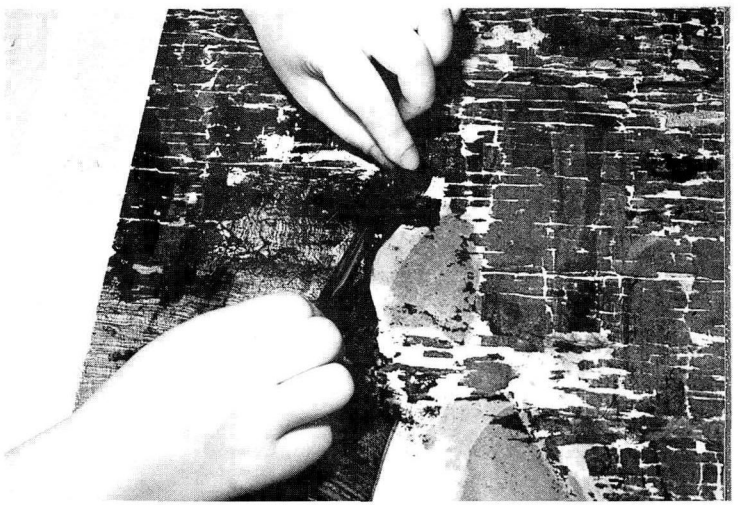


〈사진 5〉 수리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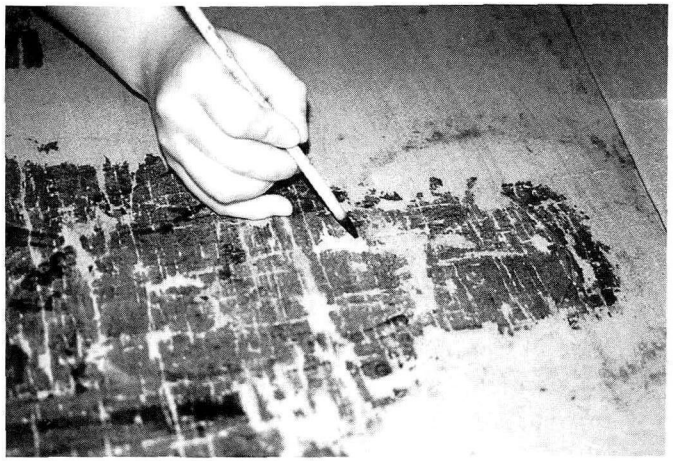


수리후
本紙의 꺾임부분, 결실부분, 이질의 舊補塡絹을 제거, 새로이 補塡, 補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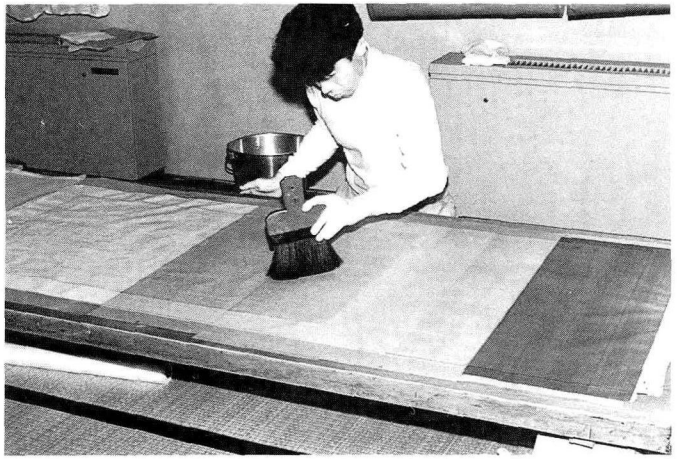
〈사진 6〉 舊배접지 제거작업(乾式배접지 제거법에 의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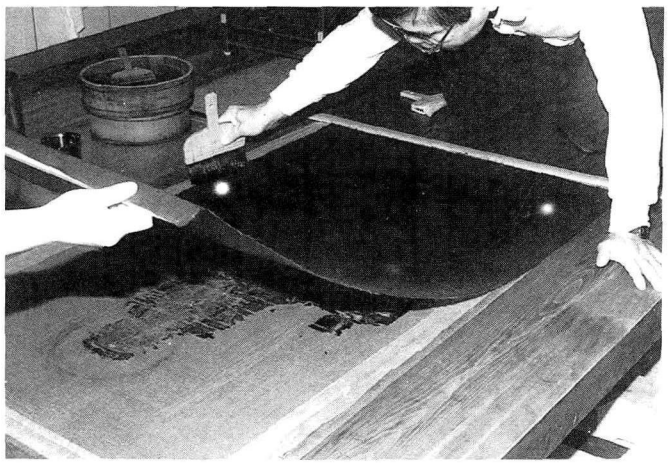
〈사진 7〉 부적절한 舊수리부분(畵面상부의 이질의 補塡絹) 제거



〈사진 8〉 本紙결실부의 補塡



〈사진 10〉 3차배접



〈사진 9〉 本紙의 1차배접